

메르스(MERS) 감염에 대해 일반대중이 경험한 두려움과 정서적 디스트레스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이 동 훈 김 지 윤[†] 강 현 숙
성균관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메르스(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사태로 인해 일반대중이 경험한 메르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정서적 디스트레스(침울한 기분, 절망, 불안, 우울감 등의 부정적인 감정)의 경험을 살펴보고, 메르스로 인한 비일상성의 경험, 국가에 대한 신뢰, 메르스 관련 정보수집을 위한 매체이용 빈도 및 매체신뢰, 메르스 관련 일반대중의 인식을 알아보았다. 또한 메르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 및 정서적 디스트레스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 및 사회적 변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자신이 메르스에 감염될까봐 두려웠다고 응답한 비율은 80.2%이었으며, 가족이 메르스에 감염될까봐 두려웠다고 응답한 비율은 88.4%이었다. 이 중 어느 한 쪽이라도 두려움을 느낀 비율은 90%였다. 메르스로 인해 정서적 디스트레스를 경험한 비율은 46%인 것으로 나타났다.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대중교통 이용 우려, 외출의 지장, 진통매체신뢰,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는 인식,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무력감이 감염에 대한 두려움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력감 경험 및 외출의 지장은 정서적 디스트레스 경험 확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은 정서적 디스트레스 경험확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 및 시사점이 제시되었다.

주요어 : 메르스, 일반대중, 감염에 대한 두려움, 정서적 디스트레스, 비일상성, 국가신뢰, 매체이용 빈도 및 매체신뢰, 대중인식

[†] 교신저자: 김지윤,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3가 25-2 성균관대학교 호암관 204호
Tel: 02) 760- 1984, E-mail: jypeace2627@naver.com

2015년 5월,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받은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사태로 인한 공포와 두려움이 한국사회를 강타했다. 지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7년 6개월간 트위터, 블로그에 올라온 70억 4279만 건의 글을 빅데이터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메르스 사태로 인한 공포 수준이 48.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2008년 광우병 파동(22.7%), 2009년 신종플루(20.1%)때의 공포 수준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일보, 2015, 06, 16). 또한 구글 코리아, 네이버, 다음 카카오 등 주요 포털 사이트들이 연말에 집계한 2015년 최다 검색어 순위에서 공통적으로 '메르스(MERS)'가 1위를 차지하는 등(경향비즈, 2015, 11, 26; 동아경제, 2015, 12, 22; 중앙일보, 2015, 12, 25; KBS뉴스, 2015, 12, 08), 메르스가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력은 상당했다. 메르스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했고(헤럴드경제, 2015, 06, 08), 음식점과 놀이동산, 쇼핑몰 등 사람들이 몰리는 장소는 눈에 띄게 한산해졌으며 2천 곳이 넘는 학교가 휴업·휴교를 단행했다(연합뉴스, 2015, 12, 14).

홍콩에서는 2003년 사스 발생 당시, 사스 감염에 대한 사람들의 위협과 공포를 '사스 포비아(phobia)'로 명명했다(Cheng, 2004). 국내에서도 메르스 사태로 인한 전무후무한 두려움과 공포의 현상을 '메르스 포비아(phobia)'라는 용어로 지칭했다. 동서양 8개 국가의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전염병에 대한 지각된 위협, 위협 인식, 효능감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사스나 조류독감과 같이 새로 발생한 신종전염병에 대한 지각된 위협수준은 기존 질병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전염병 발생

기간 동안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e Zwart et al., 2009). 우리나라의 경우도 일반대중의 75.7%가 신종전염병인 메르스를 매우 위험한 질병으로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매일경제, 2015, 05, 29).

한편에서는 메르스로 인한 '포비아(phobia)' 현상이 지나치다는 우려도 있다. 메르스가 확산되던 당시, 대한감염학회 등 의료전문가 단체와 국가는 사스나 신종플루와 달리 메르스는 공기전염이 되지 않아 전염력이 훨씬 약할 뿐만 아니라 국내 의료수준을 고려할 때, 치사율도 일반 지역사회 폐렴의 사망률보다 크게 높지 않은 10% 정도이므로 그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견해를 나타냈다(서울신문, 2015, 06, 05; 연합뉴스, 2015, 06, 15). 이와 같이 메르스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전문가 집단이 위협을 과학적 기준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일반인들은 위협의 특성을 주관적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Mumpower, 1994). 전염병의 대규모 확산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감염 자체의 실제적인 위협보다 잠재적인 공포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 밝혀졌으며(Ramalingaswami, 2001; WHO, 2003), 2003년 발생했던 사스의 사례를 통해서도 병 자체에 대한 위협보다는 공포와 두려움 같은 심리적인 영향이 더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Cheng & Tang, 2004; Leung et al., 2003). Cheng(2004)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사스 발생 당시 대중이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는 신종전염병의 위험성을 과도하게 추정함으로써 불안과 공황이 촉발되었으며, 사스와 같은 전염병은 사회적 낙인과 같은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가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대중의 위협지각에 심한 왜곡이 발생하는 현상은 '가용성 휴리스틱

(availability heuristic)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이 가능하다. ‘가용성 휴리스틱’이란,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나 확률을 판단할 때, 그와 관련된 사례가 얼마나 빠르고 쉽게 마음 속에 떠오르는가에 기초하여 결론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사람들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사건일수록 발생 가능성이 더 높고, 현실을 더 정확하게 반영할 것으로 판단하고, 신뢰한다는 것이 ‘가용성 휴리스틱’의 기본 논리이다 (Tversky & Kahneman, 1973). 즉, 기억에 남을 만큼 강렬하고 시간적으로 가까운 것일수록 기억의 인출이 용이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러한 사건의 빈도가 잦다고 판단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사망률이 더 높은 심혈관계 질환이나 암보다 테러공격, 비행기 사고, 사스와 같은 전염병과 같은 재난상황을 더 위협하게 인식하는 현상은 이러한 인지적 편향이 위험 평가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예라고 할 수 있다(Ropeik, 2003). 이처럼 신종전염병으로 인한 포비아(phobia)는 주관적 기준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염병은 단순히 의료적 문제가 아니며, 심리사회적 영향이 수반되는 복합적인 문제이다(Cheung, 2004).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우리사회가 경험한 불안과 공포를 고려하면, 앞으로 다시 발생하게 될지도 모를 신종전염병의 심리·사회적인 영향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그동안 신종전염병의 심리사회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는 전염병에 가장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의료종사자와 환자를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비교적 적은 편이다. 그러나 사스나 메르스와 같은 신종전염병에 대한 사회적인 불안과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의료종사자나 환자의 경험 뿐 아니라 일반대중이 신종전염병

에 심리사회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해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Lee-Baggley, DeLongis, Voorhoeve, & Greenglass, 2004; Sim & Chua, 2004). 이에 본 연구에서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일반대중의 심리적 경험을 살펴보고, 이러한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 및 사회적 변인을 탐색적 수준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메르스 포비아(phobia)’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일반대중들은 초기 ‘걱정’ 단계를 거쳐 ‘자신과 가족에 대한 감염 우려’의 단계로 심리적 변화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세계일보 2015, 6, 19). 또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신종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 불안의 기저에 자신이나 가족이 감염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함을 보고하고 있어(Bai et al., 2014; de Zwart et al., 2009; Main, Zhou, Ma, Luecken, & Liu, 2011; Maunder et al., 2006; Nickell et al., 2004), ‘메르스 포비아(phobia)’의 핵심적인 현상은 자신이나 가족이 감염될 것에 대한 두려움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해, 신종전염병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신종전염병이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보다 극심하고, 광범위하며, 통제할 수 없는 수준의 디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것에 주목해왔다(Lee-Baggley et al., 2004; Main et al., 2011; Gunthert, Cohen, & Armeli, 1999). 이러한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신종전염병 발생은 걱정, 우울, 불안 등의 정서적인 혼란 및 어려움과 같은 정서적 디스트레스(emotional distress)를 초래한다(Lau, Griffiths, Choi, & Tsui, 2010). 사스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신종전염병으로 인한 부정적인 심리 경험을 주로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 정서적 디스트레스 관점에서 살펴보았다(Lau et al., 2010; Nickell et al.,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메르스 발생으로

인한 심리적 변인으로 신종 전염병의 특성인 불확실성으로부터 오는 감염의 두려움과 더불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정서적 디스트레스를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의 특성은 전염병 상황 하에서의 부정적 심리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사스로 인한 부정적 심리경험에 영향을 주는 개인특성변인은 성별(Bonanno et al., 2008; Lau et al., 2008; Mihashi et al., 2009), 연령(Lau, Yang, Tsui, Pang, & Wing, 2006), 거주지역(Lau et al., 2008), 어린 자녀 및 고연령 가족 동거 (Maunder et al., 2006), 동거인 수(Chua et al., 2004; Hawryluck et al., 2004; Lau et al., 2008), 지각된 건강수준(Lau et al., 2008; Nickell et al., 2004), 삶의 질(Nickell et al., 2004)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스 당시 심리적 장애를 경험할 확률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3.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onanno et al., 2008). 시간제(part-time) 근로자의 경우, 사스와 관련하여 정서적 디스트레스를 경험할 확률이 2.6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동거인 중 어린 자녀가 포함될 경우, 개인 또는 가족의 사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할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1.8배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Nickell et al., 2004). 삶의 질은 무망감, 무력감, 불안, 우울,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인 심리상태와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이현경, 손민성, 최만규, 2012; Cotton, Levine, Fitzpatrick, Dold, & Targ, 1999), 재난 시 심리적 부적응에 대한 강력한 예측인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Wang et al., 2000).

한편, 개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요인들도 전염병으로 인한 심리적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인에는 메르스로 인한 비일상성의 경험, 국가에 대한 신뢰, 메르스 관련 정보수집을 위한 매체이용 빈도 및 매체신뢰, 메르스 관련 일반대중의 인식이 있다.

전염병은 일상생활에 변화를 야기하고, 이러한 일상의 변화는 전염병으로 인한 심리적 경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국내에서는 메르스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면서 대중교통 이용객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고(스포츠경향, 2015, 06, 17), 대중교통의 밀폐된 공간에서 기침이나 손잡이를 통한 감염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사람들은 되도록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제는 '대중교통이용에 대한 우려'를 경험하는 개인이 출퇴근이나 등하교 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메르스에 대한 공포가 증폭될수록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 하는 개인은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더 크게 느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염병 발생 시, 사람들은 예방행동의 일환으로 외출을 자제한다. 실제로 메르스 사태 당시 20-50대 응답자의 73.8%가 필요한 외출을 자제했거나 외출 자제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행사가 취소(한경비즈니스, 2015, 6, 22)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백화점, 대형마트 매출액과 카드 사용규모의 감소와 영화 관람객, 놀이공원 입장, 프로야구 관중, 박물관 및 미술관 관람 등 여가활동 지표가 메르스 발생 전과 비교해서 대폭 감소했다(조세일보, 2015, 6, 10). 메르스 발생으로 인한 여가활동의 제약은 메르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스트레스를 야기했을 가능성이 높다.

외출기피로 인한 경제적 타격도 컸는데, 메

르스 사태가 확산된 6월과 7월 두 달간의 추정 경제손실은 약 10조 원으로 세월호 참사 손실비용에 비해 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국인 관광객은 1년 전보다 40% 넘게 줄어 7천억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연합뉴스, 2015, 07, 28). 이처럼 전염병 상황 하에서의 대중교통 기피 및 외출자제(Lee-Baggley et al., 2004), 경제적 손실(Mihashi et al., 2009), 계획된 일정의 취소 등의 비일상적인 경험은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며(Main et al., 2011), 불안 및 전염병에 대한 위협인식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ee-Baggley et al., 2004). 메르스 발생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약은 사회적 변인 중의 하나로 메르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정서적 스트레스를 초래했을 가능성이 높다.

동일한 전염병이라도 사회에 따라 위협에 대한 인식과 반응이 다를 수 있다(박지은, 손애리, 2010; 조병희, 2009). 광우병의 경우,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광우병 공포가 나타났지만, 인접국가인 네덜란드에서는 불안감이 그다지 높지 않았다(Brug et al., 2004). 같은 사회에서 위협에 대한 인식은 상황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는데, 신종플루 유행시기(2009, 04, 28 ~ 2009, 09, 02)에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서 국민들이 주고받은 단어와 메르스 유행시기(2015, 05, 20 ~ 2015, 06, 18)의 단어를 비교한 결과, 2009년 발생한 신종플루는 사회적 이슈나 건강문제로 인식했지만, 메르스는 정치적인 이슈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일보, 2015, 07, 06). 이러한 현상을 통해 전염병에 대한 공포나 불안에 사회의 특유한 구조적, 상황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사람들은 공유하고 있는 심리적, 문화적 기반을

토대로 경제 불황이나 건강에 대한 위협을 인식한다(University of Western Ontario Media Newsroom, 2003, 4, 25; Cheng, 2004에서 재인용)는 것이 밝혀졌다. 예를 들면 홍콩에 사스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불경기, 실업률의 증가, 국가에 대한 불신을 사스에 대한 불안의 지표로 삼은 것(Cheng, 2004)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신종전염병에 대한 불안감을 설명하는 사회적 변인은 일반적으로 국가에 대한 신뢰요인이 꼽힌다(박지은, 손애리, 2010; 이승훈, 2009; 조병희, 2009). 90년대 유럽에서 발생한 광우병 사태의 경우에 국가와 전문가들이 정확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위험요소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적절하게 운영하는가에 대한 신뢰가 유럽인들이 갖는 위협에 대한 인식에 중요하게 작용하였다(Dora, 2006). 즉 공적제도에 대한 불신이 대중의 위협에 대한 평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것이다(Freudenberg, 1993). 이러한 선례에 기초했을 때, 일반대중의 메르스에 대한 위협 인식은 국가와 보건당국에 대한 신뢰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대중이 신종전염병에 대해 느끼는 공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사회적 변인으로 미디어의 기능이 있다(이승훈, 2009; 조병희, 2009).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하는 가장 보편적인 행동은 전염병과 관련된 최신뉴스를 시시각각 확인하면서 정보를 얻는 것이다(Cheng, 2004; Lau, Yang, Tsui, & Kim, 2003). 전염병 상황 시,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시 되는 이유는 정보의 과잉·과장보도와 오보가 개인의 심리사회적 경험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다. 새로운 전염병이 발생하면 방역대책(preventive measures)의 과학적 효과

를 입증할 때까지 일정시간이 필요한데, 이 시기에 언론이 감염확률을 과장하거나 과거에 존재했던 대량감염 및 대량사망의 사례와 비유하는 식으로 신종전염병에 대한 소식을 전하게 되면, 대중의 불안은 크게 확산될 수 있다. 실제로 2003년 사스 발생 당시에 홍콩 주요일간지에 홍콩이 사스 감염지역으로 선포되고, 세계로부터 격리된다는 오보가 게재되면서 대중의 공포가 견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다(Cheng & Tang, 2004). 이와 같이 미디어를 통하여 특정사건이나 질병에 관한 정보가 어떻게 가공되어 어떤 식으로 규정되는가에 따라서 대중의 불안감 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Miller, 1999) 메르스 관련정보의 수집을 위한 매체 이용의 빈도와 신뢰는 메르스로 인한 심리적인 영향과 높은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

다음으로, 메르스 사태 이후 일반 대중의 사회적 인식에 뚜렷한 변화가 포착되었다. 멀게는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대구 지하철 화재와 가깝게는 세월호 참사 등, 그동안 누적된 사회재난의 영향으로 국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진 상황에서 메르스 사태에서의 위기대응 실패는 사람들로 하여금 국가로부터 보호를 기대할 수 없으며, 스스로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을 만들었다(세계일보, 2015, 06, 19).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차원의 위기 상황에서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인식은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은 일반적으로 무력감을 수반한다(Stearns, 2011). 세월호 참사로 인한 무력감(티브이데일리, 2015, 04, 16)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한 메르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무력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매일신문, 2015, 06,

16). 무력감은 트라우마를 정의하는 요소(Briere & Scott, 2014)로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무력감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 심리경험을 야기할 수 있다.

신종전염병은 언제든 다시 출현할 수 있고, 세계화 시대에 접어들어 국가 간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신종전염병이 우리 사회에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신종전염병과 같은 전염성 사회재난이 다시 발생했을 때, 메르스 사태와 같은 혼란을 반복하지 않고 그로 인해 유발되는 사회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종전염병에 대응하는 국가의 위기관리 시스템을 강화하여 위협에 대한 취약성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Petersen, Hui, Perlman, & Zumla, 2015).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전염성 사회재난이 일반대중에게 미치는 심리사회적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신종전염병이 일반 대중들의 부정적 심리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신종전염병으로 인한 공포로부터의 '심리적 방역'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메르스로 인해 일반대중이 경험한 메르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정서적 디스트레스의 경험을 알아보고, 메르스로 인한 비일상성의 경험, 국가에 대한 신뢰, 메르스 관련 정보수집을 위한 매체이용 빈도 및 매체신뢰, 메르스 관련 일반대중의 인식과 같은 사회적 변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메르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 및 정서적 디스트레스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 및 사회적 변인이 무엇인지 탐색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일반대중의 메르스 감염에 대

한 두려움 및 정서적 디스트레스 경험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일반대중의 메르스로 인한 비일상성의 경험, 국가에 대한 신뢰, 메르스 관련 정보수집을 위한 매체이용 빈도 및 매체신뢰, 메르스 관련 인식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메르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 경험 및 정서적 디스트레스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며, 그 영향의 정도는 어떠한가?

측정도구

신종전염병과 관련한 현상은 각 나라와 사회의 문화적 배경 및 맥락(context)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며, 신종전염병과 관련한 현상을 밝히는데 적합한 측정도구가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스와 같은 신종전염병 관련 선행연구들에서는 각각의 연구목적에 맞는 문항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사용하였다(Main et al., 2011; Maunder et al., 2006; Sin & Huak, 2004) 국내에서는 신종전염병과 관련한 심리사회적 영향에 관한 연구가 거의 전무한 관계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팀이 토론 및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 일반대중의 실제적인 경험에 대한 실태문항을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의 개발은 사스를 비롯한 신종전염병과 관련된 국외 선행연구와 보도자료를 비롯해 관련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개발된 문항은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피드백을 받아 수정 및 보완을 거쳐서 완성하였으며, 문항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를 측정하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구하였다. 설문에 사용된 문항은 연구참여자의 개인특성(성별, 연령, 혼인상태, 최종학력, 직업, 가정 월 소득, 종교 활동, 13세 이하의 자녀유무, 고연령 가족 동거유무, 동거인 수, 지각된 건강수준, 삶의 질), 본인과 가족의 메르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 및 정서적 디스트레스 경험, 메르스로 인한 비일상성의 경험, 국가에 대한 신뢰, 메르스 관련 정보수집을 위한 매체이용 빈도 및 매체신뢰, 메르스 관련 일반대중의 인식 6가지 영역, 총 3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문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아래와 같다.

방 법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전국단위 표집을 통해 모집된 29세 이상의 성인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전국단위의 조사라는 점과 메르스라는 전염성 질환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참여자들이 웹상으로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베이를 실시하였다. 메르스 사태는 2015년 5월 20일 메르스 첫 확진자 발생 후 6월 25일에 확진자가 180명까지 증가하였다가, 7월 5일 186번째 마지막 확진자 발생 이후 16일째 신규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7월 21일 경에는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이투데이, 2015, 7, 21). 본 설문은 메르스 사태가 진정국면에 들어선 2015년 7월 30일부터 8월 7일까지 9일간 진행되었으며,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는 총 450명이었다. 설문시간은 약 20~30여분이 소요되었고, 참여자들은 온라인 서베이 업체로부터 소정의 포인트를 지급받았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전, 연구자 소속기관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로부터 연구승인을 받았다.

연구참여자의 개인특성

연구참여자의 개인특성은 성별, 연령, 혼인 상태, 최종학력, 직업, 가정 월 소득, 종교 활동 등의 기본적인 사회인구학적 정보를 묻는 7문항과 신종전염병에 관한 국외 선행연구 (Maunder et al., 2006; Chua et al., 2004; Hawryluck et al., 2004; Lau et al., 2008; Lau et al., 2008; Nickell et al., 2004)에서 감염에 대한 두려움 및 정서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으로 확인된 13세 이하의 자녀유무, 고연령 가족 동거유무, 동거인 수, 본인과 가족의 지각된 건강수준, 삶의 질을 묻는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인과 가족의 지각된 건강수준은 '현재 귀하의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현재 귀하 가족의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 측정되었으며, 삶의 질은 '메르스 사태가 확산되던 시기에 자신의 삶의 질은 어떠했습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측정되었다. 두 질문 모두 '매우 나쁘다(1점)'에서 '매우 좋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메르스 관련 심리 변인

본인과 가족의 메르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 메르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의 경험은 사스 관련연구(Nickell et al., 2004)를 참고하여 본인의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가족의 감염에 대한 두려움 두 가지로 구분하여 물었다. 메르스 사태로 인한 감염의 두려움 경험은 본인의 경우에는 '메르스 사태 당시 내가 메르스에 감염될까봐 두려웠다', 가족의 경우에는 '메르스 사태 당시 가족이 메르스에 감염될까봐 두려웠다'라는 문항에 각각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77이었다.

정서적 디스트레스 경험. 메르스 사태로 인한 정서적 디스트레스의 경험은 '메르스가 확산되던 시기에 메르스로 인해 부정적인 감정(침울한 기분, 절망, 불안, 우울감 등)을 느꼈다'라는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메르스 관련 사회적 변인

메르스로 인한 비일상성의 경험. 메르스로 인한 비일상성의 경험은 '등하교 및 출퇴근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꺼림칙했다', '감염의 우려 때문에 외출(외식, 영화, 쇼핑, 은행업무 등)에 지장을 받았다', '메르스 여파로 수입이 줄었다', '메르스로 인해 개인적인 일정 및 계획(여행, 휴가 등)에 차질이 있었다', '메르스로 인해 공적인 일정 및 계획(출장, 워크숍, 시험, 수업 등)에 차질이 있었다'에 대한 경험여부(비경험, 경험)를 묻는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0이었다.

국가에 대한 신뢰. 메르스 사태 당시 중요한 사회적 현상으로 포착된 국가와 보건당국의 신뢰에 대한 여부(신뢰하지 않았음, 신뢰했음)를 묻는 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2로 나타났다.

메르스 관련 정보수집을 위한 매체이용 빈도 및 매체신뢰. 메르스 관련 정보수집을 위한 매체이용 빈도를 파악하고자, '당신은 메르스 관련 정보수집을 위해 다음과 같은 매체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라는 질문을

각각 라디오, TV, 신문, 인터넷, SNS를 통한 정보수집 빈도(이용하지 않음, 보통, 자주 이용함)를 답하는 5문항을 구성하였다. 또한 각 매체에 대한 신뢰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당신은 메르스 정보와 관련하여 다음의 매체를 신뢰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각각 전통매체(TV, 신문, 라디오), 인터넷 매체(포털 사이트 검색, 커뮤니티, 기사), SNS(Facebook, 트위터, 블로그 등)의 신뢰 여부(신뢰하지 않음, 신뢰했음)를 묻는 3문항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73이었다.

메르스 관련 일반대중의 인식.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대중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신종 전염병과 관련된 선행연구와 메르스 관련 빅데이터 자료분석을 통해 문항을 개발하였다. 메르스 관련 일반대중의 인식은 '국가가 나를 보호해주지 못해 스스로 나를 지켜야 한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무력감을 느낀다'라는 문항에 동의여부(그렇지 않다, 그렇다)를 묻는 2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Cronbach's α 는 .78였다.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의 개인특성변인, 메르스 관련 심리변인(본인과 가족의 메르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 및 정서적 디스트레스 경험)과 사회적 변인(메르스로 인한 비일상성의 경험, 국가에 대한 신뢰, 메르스 관련 정보수집을 위한 매체이용 빈도 및 매체신뢰, 메르스 관련 일반대중의 인식)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메르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 및 정서적 디스트레스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들을 확인하기 위해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Binary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먼저, 종속변수 각각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예측변인을 대상으로 잠정적인 설명변수를 선별하기 위해 단변수 분석(univariabl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보정되지 않은 교차비(unadjusted OR)를 산출하고, 단계적(stepwise) 변수선택의 과정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들로 구성된 회귀분석 모델을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단변수 분석에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여러 설명변인들의 영향을 서로 보정한 상태에서, 각 변인들이 메르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정서적 디스트레스 경험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다변수 분석(multivariabl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다른 설명변수들의 영향이 모두 보정된 상태의 교차비(adjusted OR)와 신뢰구간(95% CI: Confidence Interval)을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된 모든 분석은 SPSS 21.0 for windows를 통해 이루어졌다.

결 과

연구참여자의 개인특성

연구참여자의 개인특성은 표 1에 제시된 것과 같다. 전체 연구참여자 450명 중 남성은 64.4%(290명), 여성은 35.6%(160명)이었으며, 연령대는 30-39세가 40.7%(183명), 40-49세가 37.3%(168명), 50-59세가 22.0%(99명)으로 나타났다. 혼인형태는 기혼자가 77.8%(350명), 최종학력은 고졸이 70.2%(316명), 직업군은 직장인이 64.2%(289명), 소득은 300~500만원이

표 1. 연구참여자의 개인특성 변인(n=450)

	변인	응답 빈도(%)	변인	응답 빈도(%)	
성별	남	290(64.4)	13세 이하 자녀유무	없음	275(61.1)
	여	160(35.6)		있음	175(38.9)
연령	30-39	183(40.7)	고연령가족 동거유무	없음	402(89.3)
	40-49	168(37.3)		있음	48(10.7)
	50-59	99(22.0)		1	39(8.7)
혼인상태	미혼	92(20.4)	동거인수	2	61(13.6)
	기혼	350(77.8)		3	115(25.6)
	이혼/사별	8(1.8)		4	188(41.8)
최종학력	중졸이하	60(13.3)		5	37(8.2)
	고졸	316(70.2)		6	9(2.0)
	대졸	72(16.0)		7	1(0.2)
직업	직장인	289(64.2)		본인건강수준	
	자영업	38(8.4)	하	44(9.8)	
	전문직	38(8.4)	중	200(44.4)	
	전업주부	57(12.7)	상	206(45.8)	
	무직	14(3.1)	가족건강수준		
	기타	14(3.1)	하	32(7.1)	
가정 월소득	100미만	4(0.9)	중	174(38.7)	
	100~200만원	32(7.1)	상	244(54.2)	
	200~300만원	76(16.9)	삶의 질	하	79(17.6)
	300~400만원	94(20.9)		중	317(70.4)
	400~500만원	103(22.9)		상	54(12.0)
	500~600만원	52(11.6)			
	600~700만원	24(5.3)			
	700~800만원	30(6.7)			
	800만원이상	35(7.8)			
종교활동여부	안함	311(69.1)			
	함	139(30.9)			

43.8%(197명), 종교활동을 안하는 사람의 비율이 69.1%(311명)로 가장 많았다.

연구참여자 중 13세 이하 자녀가 있는 비율은 38.9%(175명)였고, 고연령 가족원(65세 이상)과 동거하는 비율은 10.7%(48명)이었다. 동거인 수는 4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1.8%(188명)로 가장 많았고, 건강수준에 있어서 자신의 건강수준을 '하'로 지각하는 비율은 9.8%(44명), '중'으로 지각하는 비율은 44.4%(200명), '상'으로 지각하는 비율은 45.8%(206명)이었다. 가족의 건강수준에 있어서, 건강수준을 '하'로 지각하는 비율은 7.1%(32명), '중'으로 지각하는 비율은 38.7%(174명), '상'으로 지각하는 비율은 54.2%(244명)이었다. 메르스 당시의 삶의 질에 대해서 자신의 삶의 질을 '하'로 평가한 비율은 17.6%(79명), '중'으로 평가한 비율은 70.4%(317명), '상'으로 평가한 비율은 12%(54명)이었다.

심리적 변인의 빈도분석 결과

본인과 가족의 메르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 및 정서적 디스트레스 경험

사스의 심리적 영향을 다룬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기준(Leung et al., 2004; Mihashi et al., 2009; Nickell et al., 2004)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도 메르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정서적 디스트레스 경험에 대한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라고 응답한 인원은 메르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정서적 디스트레스를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라고 응답한 인원을 경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자신이 메르스에 감염될까봐 두려웠다고 응답한 비율은 80.2%(361명)이었으며, 가족이 메르

스에 감염될까봐 두려웠다고 응답한 비율은 88.4%(398명)로 자신보다 가족의 감염을 걱정하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특히 본인의 메르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 경험을 묻는 문항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17.6%(79명), 가족의 메르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 경험을 묻는 문항에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0.2%(136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두려움은 본인의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가족의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양분되기 어려운 개념이다(Nickell et al., 2004). 이에 본 연구에서는 메르스에 대한 두려움의 현상을 살펴보기 위해 본인 또는 가족의 감염과 관련하여 어느 한 쪽이라도 두려움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경우를 메르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했다고 분석하였다. 본인 또는 가족의 메르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 중 어느 한쪽이라도 경험한 비율은 90%(403명)이었다.

메르스로 인한 정서적 디스트레스의 경험에 있어서는 연구참여자 450명 중 46%(207명)가 메르스 사태 당시 침울한 기분, 절망, 불안, 우울감 등과 같은 정서적 디스트레스를 경험했다고 보고하였다.

사회적 변인의 빈도분석 결과

메르스로 인한 비일상성의 경험

메르스로 인한 비일상성의 경험에 있어 '등하교 및 출퇴근 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꺼림칙했다'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82.2%(370명)이었고, '감염의 우려 때문에 외출(외식, 영화, 쇼핑, 은행업무 등)에 지장을 받았다'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77.6%(349명)이었다. '메르스 여파로 수입이 줄었다'에 '그

표 2. 각 변인의 빈도분석결과(n=450)

변 인		전체 응답 빈도(%)	변 인	전체 응답 빈도(%)		
심 리 적 변 인	본인감염두려움	전혀 그렇지 않다	국가에 대한 신뢰	국가		
		그렇지 않다		신뢰하지 않았음		
		보통이다		신뢰했음		
		그렇다		보건당국		
		매우 그렇다		신뢰하지 않았음		
	가족감염두려움	전혀 그렇지 않다	라디오 이용 빈도	신뢰했음		
		그렇지 않다		이용하지않음		
		보통이다		보통		
		그렇다		자주 이용함		
		매우 그렇다		TV 이용 빈도		
	메르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 경험	전혀 그렇지 않다	신문 이용 빈도	이용하지않음		
		그렇지 않다		보통		
		보통이다		자주 이용함		
		그렇다		인터넷 이용 빈도		
		매우 그렇다		이용하지않음		
본인 또는 가족의 감염 두려움	비경험	매르스 관련 정보수집을 위한 매체이용 빈도 및 매체신뢰	보통			
	경험		자주 이용함			
	전혀 그렇지 않다		인터넷 이용 빈도			
	그렇지 않다		이용하지않음			
	보통이다		보통			
정서적 디스트레스 경험	그렇다	전통 매체신뢰	신뢰하지 않았음			
	매우 그렇다		신뢰했음			
	비경험		인터넷 신뢰			
	경험		신뢰하지 않았음			
	경험		신뢰했음			
사 회 적 변 인	등하교 및 출퇴근 길에 대중교통을 이용 우려	수입 감소	국가보호	그렇지 않다		
				비경험	그렇다	
				경험	무력감	
				비경험	그렇지 않다	
				경험	그렇다	
	감염의 우려 때문에 외출에 지장	개인적인 일정 및 계획에 차질	공적인 일정 및 계획에 차질	매르스 관련 일반대중인식	그렇지 않다	
					비경험	그렇다
					경험	무력감
					비경험	그렇지 않다
					경험	그렇다

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54.7%(246명)이었다. '메르스로 인해 개인적인 일정 및 계획(여행, 휴가 등)에 차질이 있었다'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77.1%(347명)이었으며, '메르스로 인해 공적인 일정 및 계획(출장, 워크숍, 시험, 수업 등)에 차질이 있었다'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75.3%(339명)이었다.

국가에 대한 신뢰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국가에 대한 신뢰에 있어, 국가에 대해서는 28.2%(127명)만이 '신뢰했음'이라고 응답하였고, 보건당국에 대해서는 24.9%(112명)만이 '신뢰했음'이라고 응답하였다.

메르스 관련 정보수집을 위한 매체이용 빈도 및 매체신뢰

메르스 관련 정보수집을 위한 매체이용 빈도(이용하지 않음, 보통, 자주 이용함) 중 '자주 이용함'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연구참여자가 메르스 관련 정보수집을 위해 가장 자주 이용한 매체는 인터넷이었으며 66.2%(298명), 그 다음은 TV 51.3%(231명), SNS 24.9%(112명), 신문 18.4%(83명), 라디오 12.2%(55명) 순으로 나타났다. 메르스와 관련하여 신뢰한다고 응답한 매체는 인터넷 79.8%(359명), SNS 71.3%(321명), TV, 라디오, 신문과 같은 전통매체 68.2%(307명) 순으로 확인되었다.

메르스 관련 일반대중의 인식

메르스와 관련하여 '국가가 나를 보호해주지 못해 스스로 나를 지켜야 한다'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95.6%(430명)이었으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무력감을 느꼈다'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80.2%(361명)이었다.

메르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 및 정서적 디스트레스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차적으로 단변수 분석을 통해 모든 예측변인을 대상으로 메르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정서적 디스트레스 경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잠정적인 설명 변수를 확인하였다. 다음 단계로 단변수 분석을 통해 확인된 잠정적인 설명 변수를 대상으로 다변수 분석을 거쳐 메르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정서적 디스트레스 경험에 영향을 주는 최종 요인을 확인하였다. 예측변인으로는 성별, 연령, 혼인상태, 최종학력, 직업, 가정 월 소득, 종교 활동 여부, 13세 이하 자녀유무, 고연령 가족 동거 유무, 동거인 수, 지각된 건강수준(본인 및 가족), 삶의 질과 같은 개인변인과 비일상성의 경험, 국가에 대한 신뢰, 매체이용 빈도 및 매체신뢰, 일반대중의 인식과 같은 사회적 변인들이었으며, 후진단계적(backward stepwise) 변수 선택의 과정을 통해 최종변인이 선정되었다.

메르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메르스로 인한 비일상성의 경험에서는 '등하교 및 출퇴근 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꺼림칙함'(adjusted OR 2.7, 95% CI 1.0-7.3), '감염의 우려 때문에 외출(외식, 영화, 쇼핑, 은행업무 등)에 지장을 받음'(adjusted OR 8.1, 95% CI 2.9-22.7) 요인이 본인 또는 가족의 메르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 경험 확률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등하교 및 출퇴근 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꺼림칙함'을 경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여 본인 또는 가족의 메르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할 확률이 2.7배 증가하였으며, ‘감염의 우려 때문에 외출(외식, 영화, 쇼핑, 은행업무 등)에 지장을 받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여 본인과 가족의 메르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할 확률이 8.1배 높았다.

메르스 관련 정보수집을 위한 매체이용 빈도 및 매체신뢰에서는 ‘전통매체의 신뢰’요인이 본인 또는 가족의 메르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 경험 확률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adjusted OR 3.5, 95% CI 1.4-8.6)

(표 3). ‘전통매체를 신뢰’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여 본인 또는 가족의 메르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할 확률이 3.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메르스 관련 일반대중의 인식에서는 ‘국가가 나를 보호해주지 못해 스스로 나를 지켜야 한다’는 인식(adjusted OR 4.9, 95% CI 1.1-21.0),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무력감을 느꼈다’는 인식(adjusted OR 5.1, 95% CI 2.3-11.6)이 개인 또는 가족의 메르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 경험 확률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

표 3. 메르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 경험† 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n=450)

	응답빈도(%)		unadjusted OR (and 95% CI)	adjusted OR (and 95% CI)	
	두려움 비(非)경험	두려움 경험			
등하교 및 출퇴근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꺼림칙했다					
비일상성 경험	비경험	31(38.8)	49(61.3)	1.0	1.0
	경험	16(4.3)	354(95.7)	14.0(7.1-27.4)***	2.7(1.0-7.3)*
감염의 우려 때문에 외출(외식, 영화, 쇼핑, 은행업무 등)에 지장을 받았다					
	비경험	36(35.6)	65(64.4)	1.0	1.0
	경험	11(3.2)	338(96.8)	17.0(8.2-35.2)***	8.1(2.9-22.7)***
전통매체신뢰					
매체이용빈도 매체신뢰	신뢰하지 않았음	21(14.7)	122(85.3)	1.0	1.0
	신뢰했음	26(8.5)	281(91.5)	1.9(1.0-3.4)*	3.5(1.4-8.6)**
국가가 나를 보호해주지 못해 스스로 나를 지켜야 한다					
일반대중의 인식	그렇지 않다	8(40.0)	12(60.0)	1.0	1.0
	그렇다	39(9.1)	391(90.9)	6.7(2.6-17.3)***	4.9(1.1-21.0)*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무력감을 느꼈다					
	그렇지 않다	30(33.7)	59(66.3)	1.0	1.0
	그렇다	17(4.7)	344(95.3)	10.3(5.3-19.8)***	5.1(2.3-11.6)***

† 본인의 메르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 또는 가족의 메르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

* $p < .05$, ** $p < .01$, *** $p < .001$

타났다(표 3). '국가가 나를 보호해주지 못해 스스로 나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여 본인과 가족 감염의 두려움을 경험할 확률이 4.9배 증가하였으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무력감을 느꼈다.'는 생각을 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여 본인 또는 가족의 메르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할 확률이 5.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메르스로 인한 정서적 디스트레스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메르스로 인한 정서적 디스트레스 경험 확률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요인은 연구참여자의 개인특성 가운데 '상' 수준의 '삶의 질'(adjusted OR 0.1, 95% CI 0.0-0.3)이었다. '삶의

질' 수준이 '상'인 사람의 경우에는 '삶의 질' 수준이 '하'인 사람에 비해 메르스로 인한 정서적 디스트레스를 경험할 확률이 1/10 낮았다(표 4).

메르스로 인한 비일상성의 경험 가운데 '감염의 우려 때문에 외출(외식, 영화, 쇼핑, 은행업무 등)에 지장을 받음'(adjusted OR 3.8, 95% CI 1.7-8.1) 요인은 메르스로 인한 정서적 디스트레스 경험 확률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감염의 우려 때문에 외출(외식, 영화, 쇼핑, 은행업무 등)에 지장을 받음'을 경험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메르스로 인한 정서적 디스트레스를 경험할 확률이 3.8배 높았다.

메르스 관련 일반대중의 인식 가운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무력감을 느꼈다'는

표 4. 메르스로 인한 정서적 디스트레스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n=450)

		응답빈도(%)		unadjusted OR (and 95% CI)	adjusted OR (and 95% CI)
		정서적 디스트레스 비(非)경험	정서적 디스트레스 경험		
메르스 사태가 확산되던 시기에 자신의 삶의 질은 어떠했습니까?					
삶의 질	하	3(3.8)	76(96.2)	1.0	1.0
	중	55(17.4)	262(82.6)	0.2(0.1-0.6)**	
	상	24(44.4)	30(55.6)	0.1(0.01*0.2)***	0.1(0.0-0.3)***
감염의 우려 때문에 외출(외식, 영화, 쇼핑, 은행업무 등)에 지장을 받았다					
비일상성 경험여부	비경험	48(47.5)	53(52.5)	1.0	1.0
	경험	34(9.7)	315(90.3)	8.4(5.0-14.2)***	3.8(1.7-8.1)***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무력감을 느꼈다					
일반대중의 인식여부	그렇지 않다	41(46.1)	48(53.9)	1.0	1.0
	그렇다	41(11.4)	320(88.6)	6.7(4.0-11.3)***	4.3(2.3-8.1)***

† 본인의 메르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 또는 가족의 메르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

p* < .05, *p* < .01, ****p* < .001

인식(adjusted OR 4.3, 95% CI 2.3-8.1)이 메르스로 인한 정서적 디스트레스 경험 확률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메르스 관련 일반대중의 인식 가운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무력감을 느꼈다고 생각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메르스로 인한 정서적 디스트레스를 경험할 확률이 4.3배 높았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일반대중의 메르스 감염에 대한 심리적 영향으로 두려움 및 정서적 디스트레스 경험이 어떠한지 확인하였다. 다음은 일반대중의 사회적 변인으로 메르스로 인한 비일상성의 경험, 국가에 대한 신뢰, 메르스 관련 정보수집을 위한 매체이용 빈도 및 매체신뢰, 메르스 관련 인식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연구참여자의 개인특성 변인과 더불어 사회적 변인들이 메르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정서적 디스트레스 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주요 결과와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메르스 발생으로 일반대중이 경험한 감염에 대한 두려움을 살펴보면, 연구참여자의 90%가 본인 또는 가족이 메르스에 감염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다고 보고하였다. 2003년 사스 발생당시, 홍콩의 일반대중을 상대로 실시한 연구에서는 본인 또는 가족이 사스에 감염될 것에 대한 걱정을 하는 비율은 49.3%로 나타났는데(Lau et al., 2005), 이를 보면 국내에서 일반대중의 메르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다.

한편 메르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 경험 여부

를 본인과 가족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본인의 메르스 감염을 두려워하는 연구참여자는 80.2%, 가족의 감염을 두려워하는 연구참여자는 88.4%였다. 메르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을 '매우 많이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로 보면, 본인의 감염 두려움 항목은 17.6%, 가족에 대한 감염 두려움 항목은 30.2%로 나타나 본인보다 가족의 감염에 대한 두려움을 더 높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감염에 대한 높은 두려움의 기저에는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메르스로 인한 정서적 디스트레스 경험을 살펴보면, 전체 연구참여자의 46%가 정서적 디스트레스를 경험했다고 보고했다. 캐나다에서 사스 발생 당시, 확진환자를 치료했던 병원의료종사자들의 29%가 정서적 디스트레스를 보고한 결과(Nickell et al., 2004)보다 높은 수치임을 고려하면, 메르스 사태로 인해 국내 일반대중이 경험한 정서적 디스트레스 수준이 상당히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메르스 사태 당시 일반대중의 메르스로 인한 비일상성의 경험, 국가에 대한 신뢰, 메르스 관련 정보수집을 위한 매체이용 빈도 및 매체신뢰, 메르스 관련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메르스로 인한 비일상성의 경험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등하교 및 출퇴근 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꺼림칙했다'(82.2%), '감염의 우려 때문에 외출에 지장을 받았다'(77.6%), 메르스 여파로 수입이 줄었다(54.7%), '메르스로 인해 개인적인 일정 및 계획에 차질이 있었다'(77.1%), '메르스로 인해 공적인 일정 및 계획에 차질이 있었다'(75.3%)로 나타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상생활의 제약을 받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국내에서 발생한 메르스가 다른 신종 전염병 들처럼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야기한다(WHO, 2003)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메르스 사태와 관련하여 국가에 대한 신뢰를 알아본 결과, 국가에 대한 신뢰는 28.2%, 보건당국에 대한 신뢰는 24.9%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신종전염병이 발생한 상황에서 국가에 대한 신뢰가 개인이나 대중의 공포와 불안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박지은, 손애리, 2010; 이승훈, 2009)와 맥을 같이 한다. Beck은 한국사회를 가리켜 근대화가 극단적으로 압축성장하여 특별히 위협이 심화된 사회라고 평했다(조선일보, 2008, 04, 01). 압축성장의 부작용과 함께 경기침체에 따른 양극화 및 실업률 증가 등의 사회문제와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대구지하철 화재, 세월호 참사에 이르기까지의 사회적 재난은 국민들이 안전의 문제에 있어서 국가를 불신하고, 불안감을 갖게 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메르스 관련 정보수집을 위한 매체이용 빈도 및 매체신뢰를 살펴본 결과, 메르스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데 있어 가장 자주 이용하는 매체는 인터넷이었고(66.2%), 그 다음은 TV(51.3%), SNS(24.9%), 신문(18.4%), 라디오(12.2%)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메르스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한 매체로 인터넷 포털과 지상파 TV가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었고, 다음으로 케이블 채널, 카카오톡, 밴드,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종이신문 순으로 많이 사용된 것으로 보고한 선행 조사결과(김선호, 양정애, 2015)와 유사하다. 인터넷의 높은 이용률은 정보수집 욕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사안의 경우, 접근성이 뛰어나고 풍부한 정보량을 지닌 인터넷 매체가 종이신문이나 텔레비전과 같은 전

통매체에 비해 정보습득 면에서 보다 유리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김옥태, 김규찬, 2010).

본 연구에서 매체에 대한 신뢰는 인터넷(79.8%)과 SNS(71.3%) 순서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TV, 신문, 라디오를 포함한 전통매체(68.2%)인 것으로 나타났다. 메르스 관련 정보 수집을 위해 가장 자주 이용되면서 동시에 가장 높은 신뢰를 받았던 미디어는 인터넷이었다. 이는 인터넷의 이용정도가 높을수록 인터넷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도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결과들(Johnson & Kaye, 1998; Mashek, McGill, & Powell, 1997; Pew Research Center, 1996)과도 그 맥을 같이 한다. SNS에 대한 높은 신뢰는 메르스 발생 초기, 감염환자가 입원한 병원명단을 언론보도에 앞서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김선호, 양정애, 2015).

메르스 관련 일반대중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국가가 나를 보호해주지 못해 스스로 나를 지켜야 한다’는 문항에 연구참여자의 95.6%가 ‘그렇다’고 답했다. 2003년 사스 발생 당시, 홍콩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스가 다시 발생할 경우, ‘국가가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응답한 연구참여자는 80.3%였다(Lau et al., 2005).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불안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메르스 사태에서도 국가가 초기 대응에서의 실수를 반복해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CBS노컷뉴스, 2015, 06, 04), 국가로부터 보호를 기대할 수 없다는 불신이 더욱 확고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메르스 사태와 같이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차원의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안정감을 갖지 못하고 스

스로 자신을 보호해야한다는 인식을 할 경우에는 개인의 심리적 어려움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연구참여자의 80.2%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하여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무력감을 느꼈다'고 응답하였다. 전염병이 일반적으로 무력감을 수반한다는 것(Stearns, 2011)과 일상에서의 스트레스 상황을 통제 가능한 사건으로 여기는 중국 대학생들이 사스와 관련한 스트레스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점(Gan, Liu, & Zhang, 2004)을 고려하면, 일반대중의 이와 같은 인식을 이해할 수 있다. 사스 발생 당시 홍콩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사스에 대해 무력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결과가 64.4%(Lau et al., 2005)임을 감안할 때, 메르스 발생으로 한국의 일반대중이 경험한 무력감 수준이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기본적인 사회인구학적 정보 및 13세 이하의 자녀유무, 고연령 가족 동거유무, 동거인 수, 본인과 가족의 지각된 건강수준, 삶의 질과 같은 개인특성 변인과 메르스로 인한 비일상성의 경험, 국가에 대한 신뢰, 메르스 관련 정보수집을 위한 매체이용 빈도 및 매체신뢰, 메르스 관련 일반대중의 인식과 같은 사회적 변인 가운데 메르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 경험 및 정서적 디스트레스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며, 그 영향의 정도는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참여자의 개인특성이 메르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 경험과 정서적 디스트레스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개인특성 중 '삶의 질' 요인만이 유일하게 메르스로 인한 정서적 디스트레스의 경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메르스 사태 당시, '상' 수준의 '삶의 질'을 보고하는 사람들은 '하' 수준의 '삶의 질'을 보고하는 사람보다 정서적 디스트레스의 경험 확률이 1/10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는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보고하는 사람들이 정서적 디스트레스를 경험할 확률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삶의 질이 무망감, 무력감, 불안, 우울,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인 심리적응 상태와 부적인 상관성이 있다는 선행연구(이현경, 손민성, 최만규, 2012; Cotton, Levine, Fitzpatrick, Dold, & Targ, 1999)와 어느 정도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재난을 경험한 피해자들은 재난 발생 9개월 이후에도 불안, 신체화, 우울과 같은 디스트레스를 보고하는데, 재난발생 3개월 이후의 삶의 질이 9개월 이후의 심리적 부적응에 대한 강력한 예측인자가 된다고 한 연구결과(Wang et al., 2000)도 이를 뒷받침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을 제외한 연구참여자의 사회인구학적 정보 및 개인특성은 직접적으로 메르스로 인한 감염의 두려움 및 디스트레스 경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스 발생 당시 홍콩의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Lau 등(2006; 2008)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령, 건강상태, 여성, 낮은 학력수준, 무직, 주요확진지역 거주와 같은 요인이 삶의 질의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염병 발생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은 남성보다 삶의 질을 낮게 보고하였고, 학력수준이 낮은 고령의 여성의 경우, 사스와 관련하여 걱정, 불안, 공포와 같은 부정적인 심리상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신종 전염병 발생 상황에서 일반 대중의 '삶의 질'을 비롯해 부정적 심리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 변인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메르스로 인한 비일상성의 경험이 메르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정서적 디스트레스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등하교 및 출퇴근 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꺼림칙함'을 보고한 사람의 경우에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본인 또는 가족의 메르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할 확률이 2.7배 증가하였고, '감염의 우려 때문에 외출에 지장을 받음'을 보고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본인 또는 가족의 메르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할 확률이 8.1배 높았으며, 메르스로 인한 정서적 디스트레스를 경험할 확률은 3.8배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전염병의 발생으로 인한 대중교통 기피 및 외출자제의 비일상적인 경험은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며, 불안 및 전염병에 대한 위협인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Lee-Baggley et al., 2004)과 유사하다.

또한 사스 발생 당시, 중국에서 전례 없는 도시 전체의 코호트 격리를 경험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활동 범위의 제약과 '외출의 제약이 심리장애를 예언하는 변인으로 확인된 결과(Mihashi et al., 2009)가 이를 뒷받침한다. '활동의 범위'와 '외출'이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와 관련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전염병 상황 하에서 이에 대한 제약을 받는 것은 상당한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일상생활의 활동반경이 넓거나, 젊은 연령대일수록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Mihashi et al., 2009). 한편,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외출을 피해 집에만 있을 경우, 불안감에서 해소되기 보다는 '자가격리' 상태를 만들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에볼라 발생 당시의

지침과 국내 메르스 사태에 대한 대한정신건강학회의 지침처럼 평소와 같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재난정신건강위원회, 2015, 11, 03; NYC Health, 2014, 10, 16). 마지막으로 메르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나 정서적 디스트레스는 '대중교통 이용의 우려'나 '외출 지장'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원인으로도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추후연구에서 이러한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가와 보건당국에 대한 신뢰가 메르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정서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모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광우병 사태(Dora, 2006; 조병희, 2009에서 재인용)와 홍콩 사스 발생 당시(Maunders et al., 2006)에 국가의 대처 능력에 대한 대중의 지각과 대중의 공포 및 정서적 혼란의 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가의 적절한 위협예방 조치와 국가정책에 대한 신뢰는 일반대중의 불안을 유발하거나 제어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조병희, 2009). 국가와 보건당국에 대한 불신이 대중의 불안이나 정서적 혼란에 미치는 영향은 선형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다른 요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연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메르스 정보수집을 위한 매체이용 빈도 및 매체신뢰가 메르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정서적 디스트레스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전통매체에 대한 신뢰요인만 메르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전통매체를 신뢰하는 사람은 신뢰하지 않는 사람보다 개인 또는 가족의 메르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할 확률이 3.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메르스 사

때 당시, TV 및 신문기사를 통해서 부정확한 정보가 확산되는 경우가 있거나, 사건 및 사고의 전체상이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편적인 정보가 보도되고, 공포심이나 불쾌감을 조장하는 자극적인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 등(미디어오늘, 2015, 6, 4) TV나 신문기사를 통한 보도의 과장성과 선정성 문제가 대두되었다. 전통매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자극적인 정보를 비교적 여과하지 않고 수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메르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을 더 많이 경험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디어가 질병의 위험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사망자 수, 전염 가능성, 심각한 사회혼란 등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것은 수용자들의 현실인식을 왜곡시켜 질병에 대한 공포나 건강염려증을 확대할 수 있다(박정의, 손명세, 2001; 우형진, 2007; 김여라, 2010에서 재인용)는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2014년 9월 5개의 주요 언론단체들은 세월호 참사 보도에 대한 자성의 일환으로 재난상황 시 언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재난발생 시 언론사의 취재 및 보도기준을 담은 '재난 보도준칙'을 발표한 바 있다. 준칙의 1장 2조에 따르면 태풍, 홍수, 지진과 같은 자연재난뿐 아니라 급성 감염병, 인수공통전염병, 신종인플루엔자, 조류인플루엔자(AI)의 창궐에도 질병 재난으로서 재난보도준칙이 적용된다(미디어오늘, 2015, 06, 04). 그러나 이번 메르스 사태 당시 이러한 준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 과도하거나 자극적인 정보는 부정적인 정서를 증폭시키고 더 나아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에볼라 발생 당시, 스트레스 관리요령 중의 하나로 미디어를 과도하게 접할 경우의 폐해를 알리고, 나라에서 운영하는 공식정보원과 같이

믿을 만한 출처에서 정보를 얻을 것을 전염병 대응지침 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NYC Health, 2014, 10, 16). 추후 신종전염병 발생 시, 일반대중의 두려움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매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미디어 매체가 재난보도 준칙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 및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일반대중이 매체를 통해 과도한 정보를 접하지 않을 것과 수집한 정보를 무조건적으로 신뢰하고 수용하기보다는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 등의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메르스 관련 일반대중의 인식이 메르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정서적 디스트레스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국가가 나를 보호해주지 못해 스스로 나를 지켜야 한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개인 및 가족감염의 두려움을 경험할 확률이 4.9배 증가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사스를 통제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에 대한 지각이 정서적 혼란 및 공포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한 연구(Maunders et al., 2006)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사스발생 시, 싱가포르 국가의 위기대처 능력에 대한 만족감이 90%이상이라고 평가했던 싱가포르의 시민들이 지각된 위험이나 불안울 덜 느꼈다는 보고(Deurenberg-Yap et al., 2005)를 통해서도 이와 같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한 5월 20일부터 한 달 동안 트위터, 블로그, 커뮤니티 등에서 추출한 156만여 건의 자료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메르스와 관련한 국가의 대처능력에 대한 인식의 형성과 이러한 인식이 메르스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과정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확진자 발생 후 둘째 주에는 국가의 메르스 발생 병원 비공개 방침에 대한

비판 여론이 주를 이루었고, SNS를 통해 메르스 접촉 병원리스트가 확산되면서 ‘병원(8137건)’과 ‘마스크(6420건)’ 관련 키워드가 급등해 사태 초기 국가 발표를 믿고 지켜보던 시민들이 ‘관망자’에서 메르스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는 ‘적극적인 행동자’로 변모했음을 읽을 수 있었다(세계일보 2015, 6, 19). 그 이후 접촉(5408건), 기침(4647건), 조심(4242건), 호흡곤란(3984건), 걱정(3628건) 등의 키워드가 나타나면서 메르스 감염을 두려워하는 여론이 급격히 형성됐으며, 넷째 주에는 국가에 대한 비판 강도가 강해진 것과 동시에 메르스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더욱 커져 메르스로부터 가족과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분위기가 여론의 주를 이뤘다(세계일보 2015, 6, 19). 이를 통해 메르스 사태 당시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인식에는 국가의 위기상황에서의 소통 실패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공신력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전달되는 시의 적절하고, 정확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련정보는 사스 발생상황 하에서 대중의 패닉 확산 방지와 예방행동 증진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eng, 2004; Lau et al., 2003). 실제로 싱가포르에서 사스 발생 당시, 사스 상황에 대한 적절하고, 정확하고, 명확하고, 충분하고, 시기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생각한 일반대중의 80% 이상은 낮은 수준의 불안을 보고했다(Quah & Hin-Peng, 2004). 이와 반대로 국가의 부정확하고, 혼란스럽고, 모순된 정보제공은 국가에 대한 불신과 함께 두려움, 공포의 수준을 잠재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Radosavljević & Jakovljević, 2007).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불확실한

사안을 다룰 때,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원칙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 2009년 미국에서 신종플루 발생 당시, 6,000만 명이 신종플루로 확진되었고 이중 12,469명이 사망했다고 최종 집계 되었는데, 미국국가는 일반대중이 신종플루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통해 매년 계절 독감으로 사망한 환자 수(연평균 23,607명)와 신종플루로 인해 증가한 사망자수를 비교분석한 자료를 웹사이트에 매일 공개하였으며(메디컬타임즈, 2015, 6, 8), 에볼라가 발생했을 때도 동일하게 병원과 환자의 신원과 거주지, 동선 등을 상세히 공개했다(한겨레, 2015, 6, 4). 2003년 사스가 발생한 홍콩에서는 사스와 관련된 병원 이름을 모두 밝혀, 당시 WHO로부터 “홍콩 국가가 처음부터 정직하게 충분한 정보를 대중과 미디어에 공개하여 바이러스가 대형 전염병으로 퍼지는 것을 막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심리적 방역’ 없는 ‘기술적 방역’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국민들의 불신과 그에 따른 공포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메르스 사태와 같은 전염병과 그로 인한 두려움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기술적 방역’과 함께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하여 ‘심리적 방역’ 모두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더피알, 2015, 7, 6)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적극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것, 정보를 공식화할 것, 전문가와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상황을 충분히 설명할 것, 정직한 것이 최우선 등의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원칙’(더피알, 2015, 6, 12)을 지킬 필요가 있다. 추후 신종전염병 발생 시, 원칙적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실행을 통한 효과적인 ‘심리적 방역’으로 국민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안정감을 통해 전염병으로 인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무력감을 느꼈다’는 인식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여 가족 또는 개인감염의 두려움을 경험할 확률이 5.1배 높았으며, 정서적 디스트레스를 경험할 확률은 4.3배 높았다. 사스로 인한 불안이나 공포, 무력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PTSD로 이환될 가능성이 있고, 정신건강 수준과 활기가 낮으며 특히 수면문제와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Lau et al., 2005), 메르스 발생으로 인한 무력감은 개인의 심리적 부적응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메르스는 정확한 발병률, 치사율, 치료법, 예방법 등과 같은 정확한 실체가 파악되지 않은 신종 전염병으로, 통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서적 혼란이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예로, 홍콩에서는 사스의 병인학적 요인이 밝혀지지 않았던 초기에 사스 확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당수의 대중이 극심한 디스트레스를 경험했다(Lau et al., 2003). 미국에서는 에볼라 전염병과 관련한 스트레스 관리 요령에서, 전염병 발생상황에서 본인과 가족에 대한 걱정과 더불어, 좌절감, 무력감 등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고 있다(NYC Health, 2014, 10, 16).

본 연구에서는 메르스 사태에 대한 일반대중의 심리·사회적 경험을 살펴보고, 메르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정서적 디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특성과 사회적 변인을 살펴보았다. 신종전염병인 메르스의 심리사회적 영향에 대해 국내에서 처음 수행된 연구로서 본 연구결과는 신종전염병의 ‘심리적 방역’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데 그 의의가 크

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들은 사스에 관한 국외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 개발되었다. 신종전염병에 대한 현상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도구가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스에 관한 국외선행연구들(Bai et al., 2014; Bonanno et al., 2008; Chua et al., 2004; de Zwart et al., 2009; Hawryluck et al., 2004; Lau et al., 2005; Lau et al., 2008; Lau, Yang, Tsui, Pang, & Wing, 2006; Leung et al., 2003; Maunder et al., 2006; Mihashi et al., 2009; Nickell et al., 2004; Main et al., 2011) 또한 문항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메르스에 대한 국내 일반대중의 심리사회적 경험을 사스와 같은 신종전염병들의 심리사회적 영향과 국가간 비교를 해보고자 사스와 관련된 국외 선행연구(Leung et al., 2004; Mihashi et al., 2009; Nickell et al., 2004)에서 사용한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디스트레스의 경험 여부에 관한 분류기준을 따랐다. 즉,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에 응답한 경우는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하였고,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에 응답한 경우는 경험한 것으로 분류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신종전염병이 일반대중에게 미치는 심리사회적 영향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들이 전무한 상황에서, 메르스 감염에 대한 일반대중의 두려움과 정서적 디스트레스를 탐색적 수준에서 다루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축적하여 신종전염병에 대한 일반대중의 반응을 설명할 수 있는 심리적 모형을 제안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개인특성 변인 중 ‘삶의 질’을 독립변인으로 보고 삶의 질이 메르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정서적 디스트레스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는 갑작스런 재난 상황으로 삶의 질이 일시적인 타격을 받을지라도 정상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높은 회복탄력성으로 인해 평상시 수준으로 빠른 기간 내에 회복한다(Bonanno, Galea, Bucciarelli, & Vlahov, 2006; Cummins & Lau, 2004; Ehrhardt et al., 2000; Suh, Diener, & Fujita, 1996)는 선행연구결과에 따라 '삶의 질'을 개인이 지닌 자원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스나 9.11테러에 관한 일부 연구(Bonanno, 2006; Lau et al., 2008; Main et al., 2011)에서는 '삶의 질'을 종속변인으로 간주하고, 삶의 질이나 삶의 만족에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을 살펴보기도 하였다. 이처럼 삶의 질을 독립변인으로 간주할 것인지, 종속변인으로 설정할 것인지는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달리 볼 수 있기 때문에 삶의 질과 관련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방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경향비즈 (2015, 11, 26). 카카오 통해 가장 많이 검색된 단어는 '메르스'. 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11261348321&code=930201&med=khan에서 2015, 12, 25 자료 얻음.
- 국민일보 (2015, 07, 06). 메르스를 정치적 이슈로 바라본 국민: 신종플루 때와 다르게 인식... 언급 단어 '환자' '국가' 많아.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147349&code=11131100&sid1=prj&sid2=0021에서 2015, 10, 13 자료얻음.
- 김선호, 양정애 (2015). 메르스 사태와 전염병 보도 가이드라인 제언 '빠른 정보'보다 '정확한 정보'가 더 가치 있어. 메르스와 언론 보도, 그 후. 한국언론진흥재단
- 김여라 (2010). 신종플루 뉴스 이용 정도가 개인 및 공중에 대한 건강보호 행위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5-25.
- 김영대 (2015). 수정한 SARF 를 적용한 위험의 사회적 증폭 메커니즘 분석-중동호흡기증후군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위기관리논집, 11(10), 63-89.
- 김옥태, 김규찬 (2010). 언론의 신종플루 보도가 대학생의 예방위생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4(6), 344-367.
- 동아경제 (2015, 12, 22). 구글링 통한 2015 핫토픽 키워드 '종합 1위 메르스, 자동차 1위는?'. news.donga.com/3/01/20151222/75514572/2에서 2015, 12, 25 자료얻음.
- 더피알 (2015, 6, 12). 국가가 봐야 할 미국 CDC 위기관리 인사이트. http://www.the-p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23 에서 2015, 10, 11 자료얻음.
- 더피알 (2015, 7, 6). 메르스 초기, '심리적 방역' 실패했다. http://www.the-p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18 에서 2015, 10, 11 자료얻음.
- 매일경제 (2015, 05, 29). 국민 75% "메르스 위험하다". vip.mk.co.kr/news/view/21/20/1284587.html에서 2015, 10, 29 자료얻음.
- 매일신문 (2015, 6, 16). 메르스 확산 장기화로 피로·무력감 누적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33884&yy=2015 에서 2015, 12, 29 자료얻음.
- 메디컬타임즈 (2015, 06, 08). 2009년 신종플루의

- 교훈과 '메르스'. <http://www.medicaltimes.com/News/1097552>에서 2015, 11, 12 자료연음.
- 미디어오늘 (2015, 06, 04). "메르스 사우나" "패닉", 재난보도 준칙은 어디 갔나: 치료제 없으니 안 걸리는 게 최선"... 국가 미온적 태도 문제 많지만 감정적 과장 보도도 문제.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426>에서 2015, 11, 28 자료연음.
- 박지은, 손애리 (2010). 국가에 대한 신뢰도와 광우병 리스크 인식과의 관련성 연구. *대한보건연구*, 36(2), 27-34.
- 서울신문 (2015, 6, 5). [메르스 공포] "메르스 국내 치사율 10% 예상... 일반 폐렴과 비슷한 수준".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605002012>에서 2015, 10, 28 자료연음.
- 세계일보 (2015, 6, 19). [빅데이터로 본 세계] 메르스 한 달, 걱정→불신→공포로 전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2855630>에서 2015, 11, 01 자료연음.
- 스포츠경향 (2015, 6, 17). 메르스가 가져다 준 외출자제령...대중교통 이용객 '뚝'. http://sports.khan.co.kr/news/sk_index.html?cat=view&art_id=201506171500353&sec_id=562901&pt=nv에서 2015, 10, 14 자료연음.
- 연합뉴스 (2015, 6, 15) 감염학회·감염관리학회 "메르스, 공기로는 감염 안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6/15/0200000000AKR20150615115900017.HTML?input=1195m>에서 2015, 10, 28 자료연음.
- 연합뉴스 (2015, 07, 28) 메르스 경제 손실 10조..."사회심리적 후유증도".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50728013700038/>에서 2015, 11, 01 자료연음.
- 연합뉴스 (2015, 12, 14). <2015 경제> ⑤ 우리 사회 뒤흔든 메르스 사태...경제에도 주름살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11/0200000000AKR20151211077900017.HTML?input=1195m> 에서 2015, 12, 30 자료연음.
- 이승훈 (2009). 현대 사회의 위험과 위험 관리. *현대사회와 문화*, 29(단일호), 61-88.
- 이현경, 손민성, 최만규 (2012). 우리나라 노인의 정신건강 관련 요인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12), 672-682.
- 이투데이 (2015, 7, 21). [메르스 두달] 공포 사라지고...소강상태 -메르스 사태 일지.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166928>에서 2015, 10, 14 자료연음.
- 조병희 (2009). 광우병 사례를 통해 본 한국인의 질병인식. *보건과 사회과학*, 25, 129-152.
- 조선일보 (2008, 4, 1). 첫 내한한 '위험사회' 저자 울리히 벡 교수 인터뷰 "한국은 아주 특별하게 위험한 사회다".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pdf_ReadBody.jsp?Y=2008&M=04&D=01&ID=2008040100231에서 2015, 10, 12 자료연음.
- 조세일보 (2015, 6, 10). 메르스 여파, 폭 꺼진 소비심리...불씨 살리려는 국가.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5/06/20150610261114.html>에서 2015, 11, 01 자료연음.
- 중앙일보 (2015, 6, 16). 뭐가 가장 두려웠나... 메르스 48% 광우병 23% 천안함16% <http://news.joins.com/article/18032480>에서 2015, 10, 12 자료연음.
- 중앙일보 (2015, 12, 25) 검색어 1위 한국 메르

- 스, 중국 열병식, 일본은 IS.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131683에서 2015, 12, 25 자료 얻음.
- 재난정신건강위원회 (2015, 11, 03). 감염병 스트레스에 대한 정신건강지침. traumasupport.org/category/국민자료/에서 2015, 11, 22 자료얻음.
- 티브이데일리 (2015, 4, 16).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가장 아픈 시간 “국민이 느낀 무력감 끔찍한 공포” <http://tvdaily.asiae.co.kr/read.php3?aid=1429180695887854002>에서 2016, 1, 7 자료얻음
- 한경비즈니스 (2015, 6, 22). “메르스 확산으로 필요한 외출 자제” 73.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0&aid=0000037896>에서 2015, 10, 29 자료 얻음.
- 헤럴드경제 (2015, 6, 8) <메르스 공포가 바뀌 놓은 1000만도시 서울 출근길 풍속도>너도나도 마스크 무장...지하철 의외 한산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60800499&md=20150608120851_BL에서 2015, 10, 31 자료얻음
- CBS노컷뉴스 (2015, 06, 04). ‘메르스 사태’ 왜 ‘세월호 참사와 닮은 꼴인가?’. <http://m.nocutnews.co.kr/news/4422992#csidx24H61V>에서 2015, 11, 05 자료얻음.
- KBS뉴스 (2015, 12, 08). 올해 인기 검색어 1위 메르스...최다 리트윗은 이 사진. news.kbs.co.kr/news/view.do?ncd=3195118에서 2015, 12, 25자료 얻음.
- Bai, Y., Lin, C. C., Lin, C. Y., Chen, J. Y., Chue, C. M., & Chou, P. (2014). Survey of stress reactions among health care workers involved with the SARS outbreak. *Psychiatric Services*.
- Bonanno, G. A., Ho, S. M., Chan, J. C., Kwong, R. S., Cheung, C. K., Wong, C. P., & Wong, V. C. (2008). Psychological resilience and dysfunction among hospitalized survivors of the SARS epidemic in Hong Kong: a latent class approach. *Health Psychology, 27*(5), 659.
- Bonanno, G. A., Galea, S., Bucchiarelli, A., & Vlahov, D. (2006). Psychological resilience after disaster: New York City in the aftermath of the September 11th Terrorist Attack. *Psychological Science, 17*, 181-86.
- Briere, J., & Scott C. (2014). *Principles of Trauma Therapy: A Guide to Symptoms, Evaluation, and Treatment*. CA: Sage.
- Brug, J., Aro, A. R., Oenema, A., de Zwart, O., Richardus, J. H., & Bishop, G. D. (2004). SARS risk perception, knowledge, precautions, and information sources, the Netherlands. *Emerging Infect Disease, 10*(8), 1486-9.
- Cheng, C. (2004). To be paranoid is the standard? Panic responses to SARS outbreak in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Asian Perspective, 67-98*.
- Cheng, C., & Tang, C. S. K. (2004). The psychology behind the masks: Psychological responses to the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outbreak in different regions.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7*(1), 3-7.
- Cheung, F. M. (2004). Commentary: Reintegrating psychology into an expanded biopsychosocial model of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7*(1), 83-88.

- Chua, Cheung, McAlonan, Cheung, Wong, Cheung, Chan, Wong, Choy, Chu, Lee, & Tsang (2004). stress and psychological impact on SARS patients during the outbreak. *Can J Psychiatry, 49*, 385-390.
- Cotton, S. P., Levine, E. G., Fitzpatrick, C. M., Dold, K. H., & Targ, E. (1999). Exploring the relationships among spiritual well being, quality of life,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in women with breast cancer. *Psycho Oncology, 8*(5), 429-438.
- Cummins, R. A., & Lau, A. L. D. (2004). *The motivation to maintain subjective well-being: A homeostatic model*. In H. Switzky (Ed.), International review of research on mental retardation: Personality and motivational systems in mental retardation (Vol. 28, pp. 255-301). Amsterdam: Elsevier.
- de Zwart, O., Veldhuijzen, I. K., Elam, G., Aro, A. R., Abraham, T., Bishop, G. D., & Brug, J. (2009). Perceived threat, risk perception, and efficacy beliefs related to SARS and other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results of an international surve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16*(1), 30-40.
- Deurenberg-Yap, M., Foo, L. L., Low, Y. Y., Chan, S. P., Vijaya, K., & Lee, M. (2005). The Singaporean response to the SARS outbreak: knowledge sufficiency versus public trust. *Health Promotion International, 20*(4), 320-326.
- Dora, C. (2006). *Health Hazards and Public Debate: Lessons for Risk Communication from the BSE/CJD Saga*. World Health Organization.
- Ehrhardt, J. J., Saris, W. E., & Veenhoven, R. (2000). *Stability of life-satisfaction over tim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2), 177-205.
- Freudenburg, W. R. (1993). Risk and recreancy: Weber, the division of labor, and the rationality of risk perceptions. *Social Forces, 71*(4), 909-932.
- Gan, Y., Liu, Y., & Zhang, Y. (2004). Flexible coping responses to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related and daily life stressful events.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7*(1), 55-66.
- Gunther, K. C., Cohen, L. H., & Armeli, S. (1999). The role of neuroticism in daily stress and cop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5), 1087.
- Hawryluck, L., Gold, W. L., Robinson, S., Pogorski, S., Galea, S., & Styra, R. (2004). SARS control and psychological effects of quarantine, Toronto, Canada. *Emerging Infect Disease, 10*(7), 1206-1212.
- Johnson, T. J., & Kaye, B. K. (1998). Cruising is believing?: Comparing internet and traditional sources on media credibility measures.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5*(2), 325~340.
- Lau, A. L., Chi, I., Cummins, R. A., Lee, T. M., Chou, K. L., & Chung, L. W. (2008). The SARS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pandemic in Hong Kong: Effects on the subjective wellbeing of elderly and younger people. *Aging and Mental Health, 12*(6), 746-760.
- Lau, J. T. F., Yang, X., Tsui, H., & Kim, J. H. (2003). Monitoring community responses to the SARS epidemic in Hong Kong: from day

- 10 to day 62.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57(11), 864-870.
- Lau, J. T., Griffiths, S., Choi, K. C., & Tsui, H. Y. (2010). Avoidance behaviors and negative psychological responses in the general population in the initial stage of the H1N1 pandemic in Hong Kong. *Emerging Infect Disease*, 10(1), 139.
- Lau, J. T., Yang, X., Pang, E., Tsui, H. Y., Wong, E., & Wing, Y. K. (2005). SARS-related perceptions in Hong Kong. *Emerging Infect Disease*, 11(3), 417-424.
- Lau, J. T., Yang, X., Tsui, H. Y., Pang, E., & Wing, Y. K. (2006). Positive mental health-related impacts of the SARS epidemic on the general public in Hong Kong and their associations with other negative impacts. *Journal of Infection*, 53(2), 114-124.
- Lee-Baggley, D., DeLongis, A., Voorhoeve, P., & Greenglass, E. (2004). Coping with the threat of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Role of threat appraisals and coping responses in health behaviors.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7(1), 9-23.
- Leung, G. M., Lam, T. H., Ho, L. M., Ho, S. Y., Chan, B. H. Y., Wong, I. O. L., & Hedley, A. J. (2003). The impact of community psychological responses on outbreak control for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in Hong Kong.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57(11), 857-863.
- Leung, G. M., Quah, S., Ho, L. M., Ho, S. Y., Hedley, A. J., Lee, H. P., & Lam, T. H. (2004). A tale of two cities: community psychobehavioral surveillance and related impact on outbreak control in Hong Kong and Singapore during the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epidemic. *Infection Control & Hospital Epidemiology*, 28(12), 1033-1041.
- Main, A., Zhou, Q., Ma, Y., Luecken, L. J., & Liu, X. (2011). Relations of SARS-related stressors and coping to Chinese college students' psychological adjustment during the 2003 Beijing SARS epidemic.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8(3), 410.
- Mashek, J. W., McGill, L. T., & Powell, A. C. (1997). *Lethargy '96: How the media covered a listless campaign*. Arlington, VA: The Freedom Forum.
- Maunder, R. G., Lancee, W. J., Balderson, K. E., Bennett, J. P., Borgundvaag, B., Evans, S., & Hall, L. M. (2006). Long-term psychological and occupational effects of providing hospital healthcare during SARS outbreak.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12(12), 1924.
- Mihashi, M., Otsubo, Y., Yinjuan, X., Nagatomi, K., Hoshiko, M., & Ishitake, T. (2009). Predictive factors of psychological disorder development during recovery following SARS outbreak. *Health Psychology*, 28(1), 91.
- Miller, D. (1999). Risk, science and policy: definitional struggles, information management, the media and BSE. *Social Science & Medicine*, 49(9), 1239-1255.
- Mumpower, J. L. (1994). *LLRW Disposal Facility Siting: Success and Failures in Six Countries*.
- Nickell, L. A., Crighton, E. J., Tracy, C. S., Al-Enazy, H., Bolaji, Y., Hanjrah, S., & Upshur, R. E. (2004). Psychosocial effects of

- SARS on hospital staff: survey of a large tertiary care institution.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 170(5), 793-798.
- NYC Health (2014, 10, 16). *Dealing with Stressful Events*. www.nyc.gov/html/doh/downloads/pdf/cd/ebola-stressful-events.pdf에서 2015, 11, 22 자료인용.
- Petersen, E., Hui, D. S., Perlman, S., & Zumla, A. (2015).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advancing the public health and research agenda on MERS-lessons from the South Korea outbreak. *International Journal of Infectious Diseases: IJID: Official Publication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Infectious Diseases*, 36, 54.
- Pew Research Center (1996). *TV news viewership declines: Network TV news credibility slips*. Available at <http://www.people-press.org/medmor.htm>.
- Quah, S. R., & Hin-Peng, L. (2004). Crisis prevention and management during SARS outbreak, Singapore. *Age*, 21(29b), 30-39.
- Radosavljević, V., & Jakovljević, B. (2007). Bioterrorism-Types of epidemics, new epidemiological paradigm and levels of prevention. *Public Health*, 121(7), 549-557
- Ramalingaswami, V. (2001). Psychosocial effects of the 1994 plague outbreak in Surat, India. *Military Medicine*, 166(12 Suppl), 29-30.
- Ropeik, D. (2003). Harvard Expert Tempers Risk. The World Paper. available at www.worldpaper.com/2003/april04/sars2.html.
- Sim, K., & Chua, H. C. (2004). The psychological impact of SARS: a matter of heart and mind.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 170(5), 811-812.
- Sin, S. S., & Huak, C. Y. (2004). Psychological impact of the SARS outbreak on a Singaporean rehabilitation depart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Therapy and Rehabilitation*, 11, 417-424.
- Stearns, J. K. (2011). *Infectious ideas: contagion in premodern Islamic and Christian thought in the Western Mediterranean*. JHU Press.
- Suh, E., Diener, E., & Fujita, F. (1996). Events and subjective well-being: Only recent events matt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1091-102.
- Tversky, A., & Kahneman, D. (1973). Availability: A heuristic for judging frequency and probability. *Cognitive Psychology*, 5(2), 207- 232.
- Wang, X., Gao, L., Zhang, H., Zhao, C., Shen, Y., & Shinfuku, N. (2000). Post earthquake quality of life and psychological well being: Longitudinal evaluation in a rural community sample in northern China. *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s*, 54(4), 427-433.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3).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 Status of the outbreak and lessons for the immediate future. *Geneva, Switzerland*. World Health Organization.
- Yeung, D. Y. L., & Fung, H. H. (2007). Age differences in coping and emotional responses toward SARS: A longitudinal study of Hong Kong Chinese. *Aging and Mental Health*, 11(5), 579-587.

1차원고접수 : 2016. 01. 31.
수정원고접수 : 2016. 05. 12.
최종게재결정 : 2016. 06. 07.

**The Emotional Distress and Fear of Contagion
Related to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MERS)
on General Public in Korea**

Lee, Dong-Hun

Kim, Ji-Yun

Kang, Hyun-Suk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motional distress, fear of contagion, non-dailiness, public government trust, media usage and credibility, and public awareness related to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MERS) on general public in South Korea. Furthermore, the influence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variables and social variables on emotional distress and fear of contagion related to MERS were examined. Present study found that 90% of the respondents feared about chances of their own or/and their family being infected by MERS, and 46% of respondents experienced emotional distress during the MERS outbreak.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dentified three factors as being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increased fear of contagion of their own and/or their family: perception of not being protected by government, feeling of helpless under uncontrollable circumstance, non-dailiness which limits going out; and using public transportation. A sense of helplessness, and non-dailiness were identified as being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emotional distress, and the quality of life is significantly related to decrease the presence of emotional distres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se results are discussed.

Key words :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MERS), Fear of contagion related to MERS, emotional distress, use of media, public perception